2018년 의류생활용 섬유기획 및 개발 역량 강화사업

19-20 F/W

FABRIC TREND DIRECTION

: 스포릭

주관 : ECO융합섬유연구원
진행 : ㈜트렌드 인 코리아

2018. 06

19-20 F/W OVERVIEW

모두를 위한 윤리적 공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평화와 다양성의 메세지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혁신적인 테크의 발전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듯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2019 F/W에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가능성, 첨단 테크 등 다양한 요소와 함께 어우러져 마법 같은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01. 지속가능성 섬유와 원사 이용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재생 섬유, 텐셀, 모달, 오가닉 코튼, 리넨의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염료 및 마감처리를 더한 소재를 제작한다. 또한 창조적인 재활용을 통해 리사이클 캐시미어, 울,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원사로 재생산한다.

02. 차세대 기능성 원단

차세대 기능성 원단은 신체를 보호하고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바이오 기반, 생분해되는 소재를 추구하면서 환경에 안전한 텍스타일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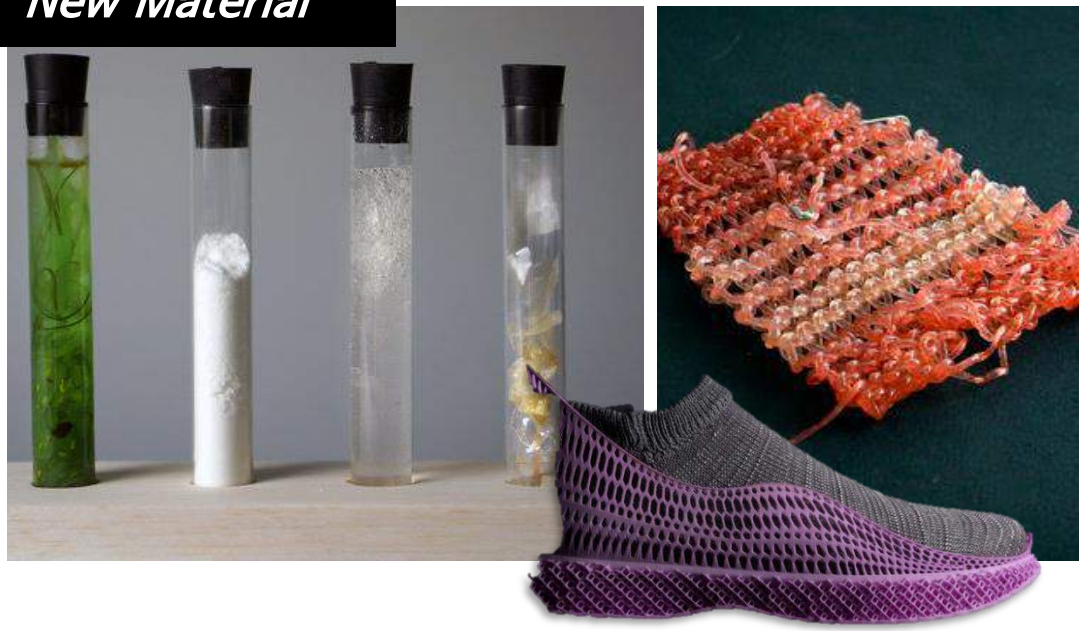
03.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구조

정보가 넘쳐나는 복잡한 현실에서 대자연과 교감하고자 하는 욕구는 계속되며 자연에 뿌리를 둔 내추럴한 컬러와 촉감을 강조한 텍스처, 사실적인 묘사부터 추상적인 분위기의 패턴을 업데이트한다.

04. 스포츠와 패션의 경계를 넘은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스타일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바쁜 도시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스타일이 필요하다. 스포츠와 패션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취향에 대한 개념이 변화한다.

New Material



해조류 성분 소재 : AlgiK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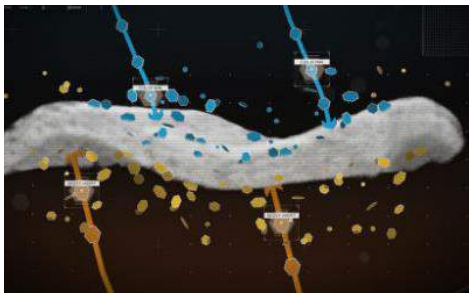
해조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생 생물체로서 이를 성분으로 한 소재가 발전하고 있다. **AlgiKnit**는 해조류를 베이스로 생체 고분자 알지네이트 원사와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생 가능하고 폐기물이 거의 없는 스니커즈를 제작하였다.

바이오 합성소재 : Bolt Threads

친환경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Bolt Thread**는 거미 DNA를 합성하여 개발한 바이오 합성 소재인 **스파이더 실크**는 부드러운 촉감, 고강도, 나일론보다 우수한 탄력성을 지녔으며 유해 성분이 없다는 장점으로 아웃도어 업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속가능성 소재로 버섯의 균사체를 사용한 **마일로 레더**는 가죽을 대체할 바이오 소재로 최근 Stella McCartney가 사용하였다.

Naturetexx Plasma : Sudwolle

지속가능성 실천이 필수가 된 현재, 업체는 유해물질이 제거된 기능성 소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9FW Performance Days에서 선보인 **Sudwolle**의 **Naturetexx Plasma** 기술은 친환경 메리노 울을 위한 공정으로 재생 에너지 전기와 공기만을 이용한다. 이 공정을 통해 세탁이 가능한 것 외에도 동일한 강도 유지, 필링 및 흡습성이 향상된다.



합성 충전재 : Polartec

천연 깃털과 합성 충전재 사이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든 브랜드들은 윤리적인 친환경 혁신이야 말로 단열 소재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RDS 인증이 천연 다운 소재의 핵심으로 자리했다. 2018 ISPO 박람회에서 선보인 **Polartec**의 **파워 필 충전재**는 80% 재활용 원사로 만들어지고, 본딩 가공을 통해 튼튼한 면포 또는 기타 안정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Act Sustainably

Patagonia

Cotopaxi

폐기물 최소화

Patagonia의 Capilene Air Hoody는 이음새 없는 3D 니트 구조로 만들어지고,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 Cotopaxi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실천

THE NORTH FACE는 미국의 일부 국립공원과 손을 잡고, 폐기된 병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의 수익을 다시 각 공원에 환원한다.

Mountain Designs 또한 바다에서 수집한 굴 껍떼기와 폐기된 병을 재활용해 자사의 Seawool 플란넬을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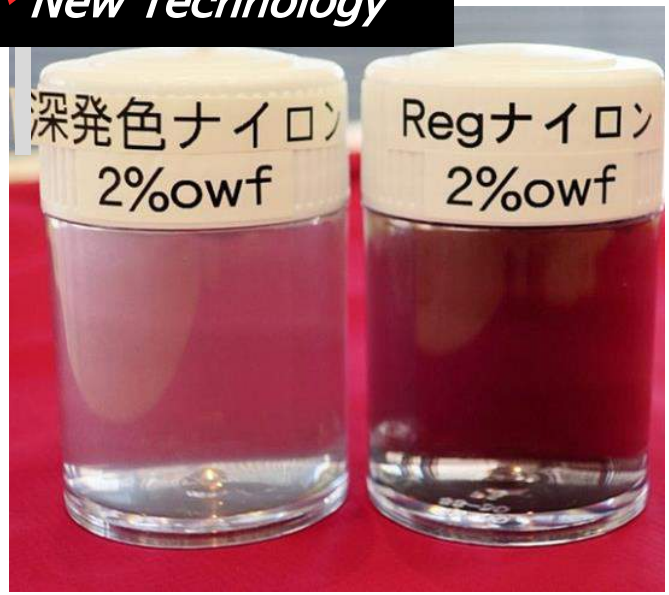
Nau는 18FW OR전시회에서 재활용 다운과 시어링으로 보온성을 보강한 컬렉션을 출시했다. 전반적으로 퍼포먼스 스타일을 추구하지만, PFC나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다.

THE NORTH FACE

Mountain Designs

Nau

New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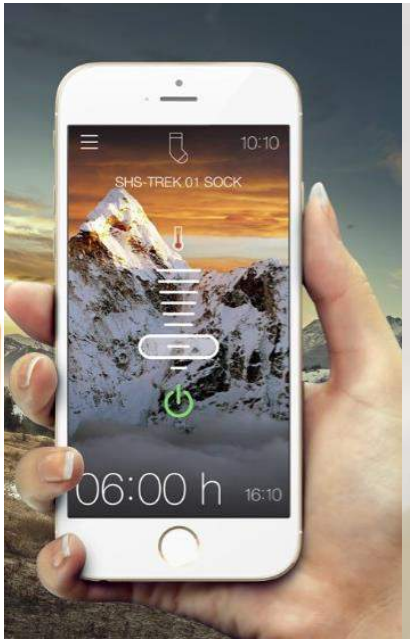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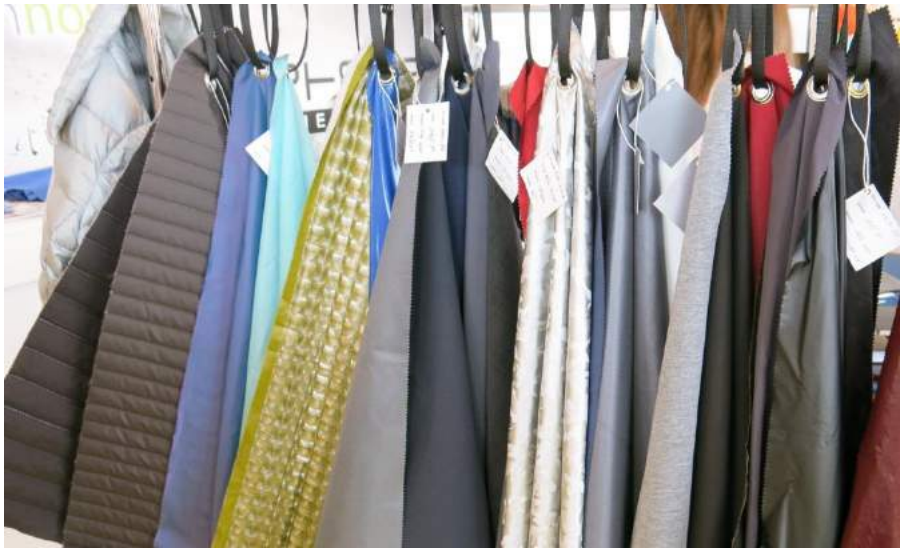
자외선 차폐 나일론 : Toray

일본 Toray에서 기존 차폐 섬유의 단점을 보완한 **심발색 TM나일론** 섬유를 개발하였다. 깊고 선명한 컬러와 높은 염색 견고성을 갖추었으며 부드러운 촉감, 냉감, 투명 방지 등 특징도 겸비하고 있다. 또한 일반 나일론 섬유에 비해 잔류 염료를 최대 20% 줄일 수 있어 염색 공정에서 폐수 부하 경감이 가능하다.

Wearable Heating : Inuheat

19FW Performance Days 에서 선보인 **Inuheat**의 **Wearable Heating** 시스템은 능동적 보온 시스템이다. 실처럼 보이는 아주 가늘고 유연한 전도성 소재로 양말, 장갑, 이너웨어 등 몸에 밀착되는 얇고 탄력 있는 제품에 적합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도 조절 및 잔여 배터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장갑 업체 Guide와 협업하였다.



신소재 그래핀

20S/S Performance에서 **TechNow**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물질 **그래핀**을 단열 수단으로 탐구한다. 05~1.5%의 그래핀을 재활용 폴리에스테르에 접목했지만, 다른 어떤 원단과도 사용 가능하다. 그래핀은 가벼운 전도성과 향균성으로 유명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성 스타일을 위한 이상적인 옵션이다.